

# 『聖學輯要』 간행에 관한 研究

A Study on Publication of the *Sunghakjipyo*(『聖學輯要』)

李 貞 效 (Lee, Junghyo)\*

## ◁ 목 차 ▷

- |                              |                     |
|------------------------------|---------------------|
| 1. 序 言                       | 3. 現存本『聖學輯要』의 板本 現況 |
| 2. 『聖學輯要』의 刊行                | 4. 木板本『聖學輯要』의 校勘    |
| 2.1 目錄上의 『聖學輯要』 板本           | 5. 結 論              |
| 2.2 文獻에 나타난 『聖學輯要』의<br>간행 기록 | <참고문헌>              |

## < 초 록 >

栗谷 李珥의 『성학집요』는 현재 국내에 많은 판본이 전래되고 있으나 언제 간행되었는지, 현존본의 수와 종류는 어느 정도 인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목판본은 황해도 해주와 전라도 전주 두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목판본의 책판은 해당 지역의 서원에서 관리·보관되었다.

둘째, 『성학집요』는 선조조에 해주에서 처음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후에 李貴(1557~1633)의 건의에 따라 다시 한 번 간행이 이루어졌다. 또 숙종연간에 전라도 전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이후 무신자로 숙종조, 영종조에 모두 세 차례 간행되어 모두 9차례 간행되었다.

셋째, 국내 소장 의 단행본은 모두 64종으로 목판본 21종, 금속활자본 18종, 필사본 16종, 신연활자본 9종으로 나타났으며, 율곡전서에 수록된 것 21종을 포함하면 국내에는 모두 85종의 판본이 현존하고 있다. 단행 목판본 21종을 모두 實査한 결과 실제로 두 가지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판종을 교감한 결과 두 판본이 번각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要語: 李珥, 栗谷, 『聖學輯要』, 『栗谷全書』, 目錄, 刊行, 木板本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him1980@hanmail.net)

접수일: 2014년 5월 28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8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Many of the edition of Yulgok Yi-I(栗谷 李珥)'s *Sunghakjipyo*(聖學輯要)are now handed down but when exactly has been published and the number and type of existence, this is how much not yet been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facts were confirmed.

first, Woodblocks were made in Haeju(海州) and Jeonju(全州). They were in the managed of local a lecture hall Seowon(書院).

second, *Sunghakjipyo*'s first edition was printed in Haeju, and then printed due to Yi-gui's recommendation. Third edition was printed in Jeonju, Sookjong Daynasty, metal print book by Mooshinja(戊申字) was printed three times in Sookjong & Youngjo Dynasty. At least printed nine times include YulgokJeonsejabon(栗谷全書字本).

Third, As a form of a book is 64 kinds over the country, 21 woodblocks, 18 metal print books, 16 manuscripts, 9 new-metal print books. Include 21 books that the *Sunghakjipyo* in the Yulgok Junseo, we currently have 85 *Sunghakjipyo*. I confirmed that wood block was two different types, and Their relationship will be formed bottom-book(底本) and reprint copy(翻刻本).

Key words: Yi-I, Yulgok, *Sunghakjipyo*, *YulgokJeonseo*, catalog, print, woodblock

## 1. 序 言

栗谷 李珥(1536~1584)는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로 현실과 원리의 조화 그리고 實功·實效를 강조하는 철학사상을 제시하였으며 여러 저술을 통해 사회의 모순된 제도를 개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저술로는 『東湖問答』·『經筵日記』·『天道策』·『聖學輯要』·『擊蒙要訣』·『萬言封事』·『學校模範』·『時弊七條策』·『答成浩原書』·『栗谷全書』 등이 전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성학집요』는 그가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던 1575년(선조 8)에 선조에게 올린 것으로 이는 임란 이전에 그리고 조선인에 의해 편찬된 조선 最高의 제왕학 서적이었다. 『성학집요』가 편찬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부터 『貞觀政要』·『大學衍義』·『大學衍義補』·『大學衍義輯略』 등과 같은 제왕학 서적을 정치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앞의 3종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이고 『대학연의집략』만이 壬亂 이전에 편찬된 조선 최초의 제왕학 서적으로, 이는 조선 전기의 문신인 李石亨(1415~1477)이 편찬한 것이다. 『대학연의집략』은 방대한 『大學衍義』의 중요한 字句만을 요약하고 高麗史의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보기에 편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大學衍義』나 『大學衍義補』와 같이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이석형은 편찬 이후 성종에게 이를 올려 성종은 간행을 명하였으나, 간행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諫言으로 인해 간행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sup>1)</sup>

이석형의 『대학연의집략』 이후 편찬된 『성학집요』는 당시 왕의 治政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던 서적이었다. 숙종과 영정조·순조 등이 경연의 교재로 사용

1) 『成宗實錄』 43卷, 5年(1474) 6月 23日.

“夕講에 나아갔다. 講讀이 끝나고서, 侍讀官 崔淑精·檢討官 安良生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先儒 眞德秀가 지은 『大學衍義』는 천하의 律令이요 格例이니, 작은 字句라도 덜 수 없는 것인데, 근자에 李石亨 등이 참람하게 붓을 대서 덜고 이따금 고려의 史實을 붙여서 『輯略』이라 이름하여 바치매, 典校署에 명하여 인쇄하게 하셨습니다. 신 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연의』는 늦건 빠르건 강독해야 하는데, 강독한다면 本集을 강독해야 하며, 이석형 등이 바친 것은 강독하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려의 일을 아울러 실었으므로 볼 만하다고 한다면, 본디 本史가 있는데 하필 이것을 강독해야 하겠습니까? 또 세상에 간행하여 중국 사람이 보게 된다면 웃음을 사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학연의집략』은 進上하는 5件 외에 인쇄하지 말라.’ 하였다.”

하였으며, 동시에 일반 士인들이 즐겨보는 성리학 서적으로도 활용되었다. 물론 이 책은 조선시대 제왕학 서적인 만큼 오늘날에 있어서 그 내용적 가치는 당시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저자인 율곡 이이와 그의 저서에 대한 연구는 사학과 철학·교육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의 저작들이 현재까지도 많은 수가 전래되는 만큼,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서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간기가 정확하지 않은 판본에 대하여 그 간행시기를 고증하거나 판본간의 우열을 가늠하는 것은 서지학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성학집요』는 선조 8년(1575)에 편찬된 이후로 처음 海州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여러 차례 鑄字와 목판으로 간행되거나 왕명에 의해 筆寫되기도 하였다. 또한 1611년 간행된 이이의 시문집인 『栗谷集』이 英宗朝에 이르러 후손들에 의해 증보되면서 『성학집요』 또한 문집에 함께 수록되어 두 차례 간행되었다. 최초의 간행과 관련된 기록은 처음 이이가 『성학집요』를 進上하였을 때, 선조가 이를 매우 가상히 여겨 褒獎하고 즉시 간행할 것을 명하였으나<sup>2)</sup> 관련된 자세한 간행 기록이나 실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간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현존하는 대부분의 판본에 정확한 간기가 남아 있지 않아 『성학집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남아있는 여러 목록과 기타 사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책판목록을 비롯한 여러 목록과 사료를 토대로 『성학집요』의 간행사실을 추론하고, 현존본 가운데 비교적 간기가 정확한 금속활자본과 율곡전서자본(복각본 포함)을 제외한 목판본을 대상으로 판본의 특징을 토대로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지 혹은 판본간의 우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光海君日記』 1卷, 卽位年(1608) 2月 21日(戊寅) 『昭敬大王行狀』.

“ … 儒臣李珣撰進《聖學輯要》。王深加嘉獎, 卽命刊行。… ”

## 2. 『聖學輯要』의 刊行

### 2.1 目錄上의 『聖學輯要』 板本

『성학집요』 판본에 대하여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여러 목록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당시의 간행 상황과 간행 이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목록은 일정한 형식을 통해 여러 서적을 분류에 따라 나누고, 사람들에게 도서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알게 한다. 특히 각 시대의 고서에 대한 총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도서자체에 대한 상황 즉 서명과 편찬자·권 책 수·판본 등의 서지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항들로 우리는 고서 자체의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알 수 없는 부분을 고증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편찬된 여러 목록에 수록된 『성학집요』 관련 기록을 통해 간행사실과 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국내에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목록 혹은 조선시대의 서적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목록 가운데 『성학집요』가 수록된 목록은 대략 20종 정도이나 임란 이전에 편찬된 목록은 『攷事撮要』 한 종뿐이다. 목록 대부분이 英正祖 시기인 조선 후기에 간행되었거나, 그 편찬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朝鮮圖書解題』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에 의해 편찬되었으나, 조선의 도서를 토대로 작성 하였으므로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모두 18종의 목록을 대상으로 類屬의 상황과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 1><sup>3)</sup>과 같이 나타났다.

3) 張伯偉의 『朝鮮時代書目叢刊』과 『韓國冊板目錄總覽』(한국정신문화연구원)·『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학술대회논문집)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표 1> 목록에 수록된 『성학집요』

번호	목록명	작성연대	분류	내용
1	攷事撮要	宣祖 18年 (1585)	册板目錄>黃海道>海州	聖學輯要
			書册印紙數	聖學輯要 紙九卷六張
2	海東文獻總錄	仁祖 15年 (1637)	儒家雜著述	<p>李珥。以眞西山大學衍義。卷帙太多。猶欠簡要。似紀事之書。非實學之體。遂摭四書六經。以及先儒之說。歷代之史。深探廣搜。採掇精英。彙分次第。刪繁就簡。沈潛玩味。反覆櫟括。兩閱歲而編成凡五篇。其一篇曰統說者。合修己治人而爲言。卽大學所謂明明德新民止於至善也。其二篇曰修己者。卽大學所謂明明德也。其目有十三。其一章則總論也。其二章曰立志。三章曰收斂者。定趨向而求放心。以植大學之基本也。其四章曰窮理者。卽大學所謂格物致知也。其五章曰誠實。六章曰矯氣質。七章曰養氣。八章曰正心者。卽大學所謂誠意正心也。其九章曰檢身者。卽大學所謂修身也。其十章曰恢德量。十一章曰輔德。十二章曰敦篤者。申論誠正修之餘蘊也。其十三章則論其功效。而修己之止於至善者也。其三篇曰正家。四篇曰爲政者。卽大學所謂新民而正家者。齊家之謂也。爲政者。治國平天下之謂也。正家之目有八。其一章則總論也。其二章曰孝敬。三章曰刑內。四章曰教子。五章曰親親者。言孝於親。刑于妻子。友于兄弟之道也。其六章曰謹嚴。七章曰節儉者。推演未盡之意也。其八章乃說功效。則齊家之止於至善者也。爲政之目有十。其一章則總論也。其二章曰用賢。三章曰取善者。卽大學所謂仁人能愛能惡之意也。其四章曰識時務。五章曰法先王。六章曰謹天戒者。卽大學所引儀監于殷。峻命不易之意也。其七章曰立紀綱者。卽大學所謂有國者。不可以不慎。辟則爲天下僂之意也。其八章曰安民。九章曰明教者。卽大學所謂君子有絮矩之道。而興孝興弟不倍之意也。其十章則終之以功效。而治國平天下之止於至善者也。其五篇曰聖賢道統者。是大學之實跡也。合而名之曰聖學輯要。終以傳道之責。望於殿下者。亦非過言。殿下當五百之期。居君師之位。有好善之智。寡欲之仁。斷事之勇。誠能終始典學。勉勉不已。則勝重致遠。何所不至乎。</p>

번호	목록명	작성연대	분류	내용
3	册板置簿册	英祖 16年 (1740)	全羅道>全州	聖學輯要 白紙 九卷十丈 在華山書院
4	三南册板目錄	英祖 19年 (1743)	全羅道>全州	聖學集要 華山書院 四卷 十束十五丈
5	諸道册板錄	英祖 25年 (1750)	全羅道>全州	聖學集要 花山書院 十束十五丈
6	完營册板目錄	英祖 35年 (1759)	全羅道>全州	聖學輯要 白紙 十束十丈 刊
7	各道册板目錄	正祖 2年 (1778)	黃海道>海州	聖學輯要 缺刊
8	五車書錄	正祖 15年 (1791)	全羅監營	聖學輯要 一秩 紙 十束十五丈 散落 客舍 完缺
9	鏤板考	正祖 20年 (1796)	子部>儒家類	聖學輯要 十三卷 李朝議政府右贊成兩館大提學文成公李珥撰 以真德秀大學衍義 猶欠汗漫 倣其例 採摭經史 刪繁就要 分爲五類 曰統說 曰修己 曰正家 曰爲政 曰聖賢道統 萬曆乙亥 隨箋進于廟 英宗朝進講于經筵 御製序弁首. 海州 紹賢書院藏刊 印紙十六牒七張
10	群書標記	正祖年間 (1776~1800)	御定	聖學輯略 六卷 寫本 聖學輯要. 卽先正李珥所撰進于宣廟之書也. 其書最切於爲學之工夫. 爲治之本根. 故予自少酷好之. 每於燕閒之暇. 與近思錄參看. 而惟是繙閱之便. 愈愈妙. 乃點鈔其尤切要者. 編爲是書. 其目曰統說. 曰修己. 曰正家. 曰爲政. 曰聖賢道統.
11	洪氏讀書錄	序[1810]	儒家	聖學輯要 八卷 栗谷李先生珥之所作也 先生進是書于朝專爲輔導君德作 故曰聖學 其體例略倣大學衍義 其條例序陳俾學者瞭然於進德修業之次第 則又非真邱兩公所能逮東方之有書籍垂二千年 其大有裨於治國修身之道者宜以此書爲第一 雖百世不能易也
12	西庫藏書錄	高宗 2~3年 (1865~1866)	儒家類	聖學輯要 八件 四件各七册 二件鑄 二件鑄吐 四件各四册 三件木 本朝李珥編
			江都移來件	聖學輯要 三件各四册木
			內下舊件	聖學輯要 一件七册

번호	목록명	작성연대	분류	내용
13	東國通志	高宗 5年 (1868)	藝文志	聖學輯要 七卷 李珥著 宣祖朝荀進
14	增補文獻備考	光武 7~ 隆熙 2年 (1903~1908)	藝文考> 儒家類	聖學輯要 七卷 文成公李珥撰
15	寶文閣冊目錄	未詳	子部	聖學輯要 二件各四冊 本朝李珥撰
16	隆文樓書目	未詳	第一架	聖學輯要 五件 四件各七卷內二件并第六佚一件第一第二佚 一件第三第四第五佚 一件四卷內第四佚
17	古冊板所在考	未詳	全州	聖學輯要 刑不用
18	朝鮮圖書解題	昭和 6年 (1931)	子部>儒家類	聖學輯要 一三卷七冊 李珥著 印本 宣祖八年李珥か弘文館副提學たりし時聖學 に益し治道に補あらしむるため撰進したる ものにして眞西山の大學衍義を以て簡要を 缺をたるものと爲し直に大學の本旨に據り て次序を立て聖賢の言を引いて之を考證し 更に説明を加へたり分ちて五篇と爲す第一 篇統說第二篇修己第三篇正家第四篇爲政第 五篇聖賢道統 <sup>4)</sup> 是なり此の書は同人著擊蒙 要訣と共に朝鮮に於て撮も廣く讀まれたる ものにして英祖三十五年刊行す

먼저 선조 18년(1585)에 편찬된 고사촬요에는 『성학집요』의 책판이 황해도 해주에 소장되고 인쇄에 필요한 종이가 九卷六張임을 알 수 있으나, 당시의 간행된 책의 卷冊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이 목판본이며, 그 시기가 1585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정조년간에 편찬된 호남지역의 책판목록인 『完營冊板目錄』과 삼남지방의 책판에 대해 수록한 『冊板置簿冊』·『三南所藏冊板』·『諸道冊板目錄』등을 살펴보면全州에서도 목판본을 간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전주의 華山書院에서 이 책판을 보관하였다.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의 경우 인쇄에 쓰인

4) 聖學道統을 聖賢道統으로 바로잡음.

종이의 수량이 대부분 10束 10~15丈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록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 가운데 『完營冊板目錄』의 경우 목록을 편찬한 1759년에 이미 판이 닳아있었기 때문에 이 판본은 간행한 시기가 훨씬 이전이었음을 알려 준다. 특히 栗谷年譜(南溪集 권86)에 의하면, 속집 8권·외집 8권 및 별집 6권을 南溪 朴世采가 1672년~1681년에 편찬하여 1682년 관찰사 申翼相(1634~1697)이 續集과 外集을 전주에서 판각한 사실이 있다. 또한 숙종 22년에는 經筵에서 繼講할 책자로 『성학집요』를 추천하였으므로 校書館에서 즉시 인출하여 계강할 것을 청하는 계가 있자 이를 윤허하였고,<sup>5)</sup> 이듬해에는 처음으로 주장에서 『성학집요』를 경연에서 강독하였다.<sup>6)</sup>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시의 『성학집요』의 권위가 그 이전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비슷한 시기인 17세기 후반, 즉 숙종년간(1674~1720)에 『성학집요』를 전주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자본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먼저 『朝鮮圖書解題』의 『성학집요』(13권 7책)의 해제 말미에는 ‘영조 35년에 간행하였다.’고 되어있어 주자본이 13권 7책으로 간행되었음을 알게 한다. 또한 고종년간에 편찬된 『書庫藏書錄』을 보면 『성학집요』 8건 중에 4건은 모두 7책으로 주자본이며, 3건은 4책의 목판본이다. 특히 주자본 중에는 縣吐本도 두 건이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江都로부터 이관 해온 목록에는 목판본이 4책으로 되어있어 당시에 서고에 소장된 목판본은 모두 4책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조 20년(1796)에 편찬된 『鏤板考』에는 『성학집요』가 13권으로 기록 되어있고 그 해제에는 ‘영종조에 경연에서 진강하였고, 책머리에 어제 서문이

5) 『承政院日記』 肅宗 22년(1696) 9월 6일(己未).

○弘文館啓曰, 繼講冊子, 依傳教往問于領議政柳尙運, 右議政徐文重, 則皆以爲, 方在惶蹙待罪之中, 經筵繼講冊子, 不敢可否云, 而以私問之, 則春秋集傳, 固好, 而卷秩浩多, 終不若聖學輯要之切緊簡略, 更問於左議政尹趾善, 則聖學輯要之便當, 已達於筵中, 更無可議云. 三公之意既如此, 聖學輯要, 以活字, 令校書館卽速印出, 以爲繼講之地, 何如? 傳曰, 允.

6) 『肅宗實錄』 31卷, 23年(1697) 4月 11日(庚申).

○御書講. 是日, 上初講《聖學輯要》.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주자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현전하는 목판본 가운데 어제서문이 수록된 것이나 13권으로 구성된 것은 없다. 또 그 맨 아래에 '해주 소현서원 소장으로 판은 닳았다'고 되어있다. 이는 책판을 대상으로 만든 목록인 『鏤板考』가 卷數와 해제의 내용만은 주자본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권책수에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 후기 문신 洪奭周(1774~1842)의 독서록인 『洪氏讀書錄』에는 『성학집요』 8권으로 되어있으며 판본의 종류도 알 수 없다. 다만 현존하는 8권본의 경우 영조 25년에 간행된 율곡전서본에 수록된 『성학집요』일 가능성이 높으나, 필사본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부터 일본강점기까지의 목록에 기록된 『성학집요』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고사촬요』와 『누판고』·『각도책판목록』 등의 책판목록을 통해 목판본의 간행이 황해도 해주와 전라도 전주 두 곳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간행된 목판본은 모두 4책으로 제작되었고 목판본의 책판은 지역의 서원에서 관리·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에 7책의 주자본과 4책의 목판본이 유통되었으며, 西庫에 소장된 주자본에는 현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2 文獻에 나타난 『聖學輯要』의 간행 기록

앞서 조선시대에 편찬된 목록을 통해 『성학집요』의 간행관련 기록을 살펴보았다. 목록을 통해서는 각 판본의 형태나 印紙數, 내용 등을 파악하기는 쉬우나 간행 시기를 정확히 고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목록외에 다른 문헌에 『성학집요』의 간행과 관련한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성학집요』의 간행을 명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lt;표 2&gt; 『聖學輯要』간행 관련 문헌내용

번호	文獻 書名	年月日	內容	原文
1	『光海君日記』 1卷	即位年(1608) 2月 1日 昭敬大王 行狀	儒臣 李珥가 『聖學輯要』를 찬술하여 올리니, 왕이 매우 가상히 여겨 褒獎하고 즉시 간행하라고 명하였다.	儒臣李珥撰進《聖學輯要》。王深加嘉獎，卽命刊行。
2	『國朝寶鑑』	仁祖朝 1.2年(1624) 7月	李貴가 경연에서, 海州로 하여금 문성공이이의 문집과 그가 찬한 『성학집요』를 간행하여 올리게 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李貴於經筵，請令海州，刊進文成公李珥文集及所撰聖學輯要，從之貴嘗師事李珥者也。
3	『承政院日記』	肅宗 22年(1696) 9月 6日	『성학집요』를 교서관에서 즉시 인출하여 계강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의 계	弘文館啓曰，繼講冊子，依傳教往問于領議政柳尙運，右議政徐文重，則皆以爲，方在惶蹙待罪之中，經筵繼講冊子，不敢可否云，而以私問之，則春秋集傳，固好，而卷秩浩多，終不若聖學輯要之切緊簡略，更問於左議政尹趾善，則聖學輯要之便當，已達於筵中，更無可議云。三公之意既如此，聖學輯要，以活字，令校書館卽速印出，以爲繼講之地，何如？傳曰，允。
4	『承政院日記』	英祖 5年(1729) 7月 19日	교서관에 『성학집요』 15건을 활자로 인출할 것을 운허함	申致雲，以弘文館言啓曰，召對繼講冊子，依議施行事，命下矣。聖學輯要，依東國通鑑例，經筵所用十五件，以活字，令校書館，卽速印出，以爲繼講之地，何如？傳曰，允。
5	『英祖實錄』 31卷	英祖 8年(1732) 1月 12日	당시에 임금이 『성학집요』를 강독하면서 御製序文을 짓고 先正에 대하여 흥취를 느껴 이런 명이 있었다.	○遣儒臣，致祭于紫雲書院時，上講《聖學輯要》，親製序文，興感於先正，有是命。
6	『英祖實錄』 94卷	英祖 35年(1759) 10月 6日	임금이 熙政堂에 나아가 召對하여 『성학집요』를 講하였으며, 인하여 승지에게 『성학집요』의 小識를 불러주면서 쓰도록 명함	上御熙政堂召對，講《聖學輯要》，仍命承旨，呼寫《聖學輯要》小識，仍召見大臣備堂。

위의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간행은 소경대왕 즉 선조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기록은 선조실록의 것이 아니라 『光海君日記』에 수록된 바로, 당시에 즉시 간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서 宣祖 18년(1585)에 간행된 『고사촬요』 책판목록에 『성학집요』가 해주에서 간행된 기록이 있으므로, 선조조에 간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간행은 李貴(1557~1633)의 건의로 간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간행 경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다만 仁祖 10년(1632) 8월 20일에 李貴가 올린 차자에 보면,

… 宣祖께서 이이의 말을 만세의 正論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죽었으나 그 말은 아직 남아 있으니,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도를 행한다면, 이이는 비록 구천에 갔으나 聖明의 세상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인쇄한 책 4부를 전하게 올리니, 혹 정무를 보살피시는 여가에 특별히 읽어 보시옵소서. …7)

라 하여, 일전의 건의가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앞서 선조조에 간행된 책판으로 후쇄한 것인지 새로 간행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또한 숙종·영조조에는 經筵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교서관에 『성학집요』의 간행을 명하였고, 활자본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숙종은 활자본으로 간행하기 이전에 이미 사본을 만들 것을 명하여<sup>8)</sup> 틈틈이 독서하였으므로, 『성학집요』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조는 어느 왕 보다도 『성학집요』를 강독하기를 좋아하였고, 영조 8년에는 직접 御製序文을 짓고 35년에는 小識를 만들어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숙종과 영조조에 간행된 활자본은 현재에

7) 『承政院日記』 仁祖 10年 壬申(1632), 8月 20日(乙酉).

“延平府院君李貴筓子：… 宣祖乃以李珥爲萬世正論。其人雖死，其言尚在。苟能因其言而想其人，想其人而行其道，則李珥雖死於九泉之下，而得見用於聖明之世。故謹以印本四部，進之於四聽之下，儻於萬機之暇，特賜乙覽。…”

8) 『숙종실록』 9권, 6년(1680) 7월 24일(신해).

“○召對玉堂官。吳道一曰：“《聖學輯要》即先正臣李珥所撰，進于宣廟者，而其書最切於帝王之學，宣廟每稱其有補治道。倘於燕閒之際，常常閱覽，必多裨益矣。”上命弘文館繕寫以進。”

도 많은 판본이 전래되고 있어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目錄上에 나타난 『聖學輯要』 板本에 관련된 기록과 기타 文獻에 수록된 『聖學輯要』 간행 관련 사실을 토대로 『성학집요』의 간행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성학집요』 간행 一覽表

	刊行年	刊行處	板本	形態	卷冊	現存與否
1	宣祖9~16年 (1576~1583)	黃海道 海州	木板本	단행본	未詳	未詳
2	仁祖 2~10年 (1624~1632)	黃海道 海州	木板本	단행본	[7卷4冊]	未詳
3	[肅宗年間 (1675~1720)]	全羅道 全州	木板本	단행본	4冊	未詳
4	肅宗 22年 (1696)	校書館	金屬活字 (戊申字)	단행본	13卷 7冊	現存
5	英祖 8年 (1732)	校書館	金屬活字 (戊申字)	단행본	13卷 7冊	現存
6	英祖 25年 (1749)	李珥 後孫	金屬活字 (栗谷全書字)	율곡 전서본	38卷 23冊 (8卷 4冊)	現存
7	英祖 35年 (1759)	校書館	金屬活字 (戊申字)	단행본	13卷 7冊	現存
8	純祖 14年 (1814)	黃海道 海州	木板本	율곡 전서본	44卷 38冊 (8卷 4冊)	現存
9	[光武年間 (1897~1906)]	[學府]	新鉛活字本	단행본	13卷 2冊	現存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성학집요』는 宣祖 9년에서 16년 사이에 황해도 해주에서 처음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후에 이귀의 건의에 따라 인조조에 다시 한 번 간행이 이루어졌다. 또 숙종연간에 전라도 감영인 전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이후 금속활자본으로 다섯 차례나 간행되었다. 그 중에 율곡전서자본은 순조 14년에 다시 목판본으로 번각되었으며, 광무연간에 학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신연활자본을 간행하였다.

이와 같이 『성학집요』는 단행본으로 7번, 전서본과 복각본으로 각각 1차례 총 9차례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인조 2~10년 사이의 간행이 선조조 간행본의 후쇄라고 보더라도 최소 8차례 이상 공식적인 간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現存本 『聖學輯要』의 板本 現況

현존하는 『성학집요』의 전체적인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고전적종합목록(KORCIS)과 우리나라 주요 고서 소장기관<sup>9)</sup>의 목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장의 단행본은 모두 64종으로 목판본 21종, 금속활자본 18종, 필사본 16종, 신연활자본 9종으로 나타났으며, 율곡전서에 수록된 것은 모두 21종으로 율곡전서자본(홍계회활자), 목판본, 필사본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외소장으로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와 버클리대학교에 각각 금속활자본 1종이, 미 의회도서관에는 목판본 1종이 소장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존하는 『성학집요』는 국내에 총 85종이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KORCIS나 목록상에 누락되었거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검색되지 않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좀 더 많은 수가 현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현존본을 바탕으로 형태적 특징을 판본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이 금속활자본과 목판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금속활자본은 4종의 단행본과 1종의 율곡전서본으로, 목판본은 2종의 단행본과 1종의 활자본(전서본) 복각본으로 나눌 수 있다.

9)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국립중앙도서관, 국민대, 국학진흥원, 국회도서관, 규장각,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시민도서관, 서울대, 성균관대 존경각,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장서각, 전남대, 조선대, 충남대 등 고서를 만 권 이상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음.

&lt;표 4&gt; 현존 『성학집요』 판본의 형태사항

板本の種類	金屬活字本					木板本		
	단행본 (무신자)	단행본 (무신자)	율곡전서본 (전서자본)	단행본 (무신자)	단행본 (연활자)	단행본	단행본	전서본 복각본
刊行年	肅宗 22 (1696)	英祖 8 (1732)	英祖 25 (1749)	英祖 35 (1759)	光武年間	未詳	未詳	純祖 14 (1814)
卷冊數	13권 7책	13권 7책	8권 4책	13권 7책	13권 2책	7권 5책	7권 4책	8권 4책
匡郭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單邊	四周雙邊	四周單邊	四周單邊	四周雙邊
半郭의 크기	24.7×17.3cm	24.7×17.3cm	21.6×15.0cm	24.7×17.1cm	17.8×11.5cm	22.3×17.5cm	22.8×17.0cm	21.6×15.0cm
行字數	10行18字	10行18字	11行20字	10行18字	15行35字	11行20字	11行20字	11行20字
魚尾	內向二葉 花紋魚尾	內向二葉 花紋魚尾	上花紋魚 尾	內向二葉 花紋魚尾	上下向二葉 花紋魚尾	內向二 三葉花 紋魚尾	上下內向 黑魚尾	上花紋 魚尾
크기	34.7×22.7cm	34.7×22.7cm	29.2×19.0cm	36.3×23.6cm	22.5×14.8cm	27.5×20.0cm	35.6×22.8cm	29.2×19.0cm
序跋	序: 萬曆三年歲次乙亥(1575) ...李珥 內賜記: 康熙三十五年(1696)十二月十九日內賜侍講院進書權尙夏..右承旨臣尹[手決]	卷首: 御製序...歲壬子(1732)...趙明履奉教書序...萬曆三年(1575)李珥 卷末: 進聖學輯要笥子...李珥	附錄末: 崇禎再甲子...李緯跋 / 卷末: 己巳(1749) ...洪啓禧跋	御製小識...己卯(1759) ...沈履之奉教書 序: 萬曆三年(1575) ...李珥 御製序: 壬子(1732) ...趙明履奉教書	...序: ...李珥拜手稽首謹序	序: 萬曆三年歲次乙亥(1575)秋七月既望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臣李珥拜手稽首謹序	卷首: 萬曆三年(1575) ...李珥序, 進聖學輯要笥子...李珥	跋: 崇禎再甲子(1744) ...李緯 / 刊記推定: 甲子後五年己巳...重刊後六十有五年甲戌(1814) 番飛刻
所藏處	국립중앙도서관 외	규장각 외	규장각 외	이화여자대학교 외	국민대학교 외	존경각 외	규장각 외	국립중앙도서관 외

단행본으로 간행된 조선시대 금속활자본은 모두 13권7책으로 그 크기와 어미의 모양, 항자수 등의 형태가 거의 동일 하고 字體도 무신자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英祖 35년(1759)에 간행된 무신자만이 사주가 단변으로 만들어졌다. 율곡전서자본을 복각한 목판본은 그 형태적인 특징은 율곡전서자본과 동일하게 나타났고 頭註가 약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행 목판본의 경우 7권 5책과 7권 4책본으로 나누었는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목판본이 7권 4책으로 제작되었으며, 7권 5책본 또한 7권 4책본과 동일한 판본이나, 제작만 5책으로 되어있었다. 목판 단행본의 경우 21종이나 현존하고 있으나 간기가 없어 실제 간행된 시기를 모두 알 수 없다. 단행 목판본의 어미의 경우 자관 목록에는 上下內向黑魚尾 혹은 上下內向二三葉花紋魚尾 등으로 기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흑어미와 2·3葉花紋魚尾 혹은 특이한 형태의 어미가 마구 섞여 나오는 雜魚尾로 지방판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목판 단행본의 형태사항만을 보면 광곽의 형태와 크기, 항자수가 모두 비슷하여 1종의 판본으로 보기 쉬우나, 21종의 목판본을 모두 實査한 결과 실제로 두 가지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4. 木板本 『聖學輯要』의 校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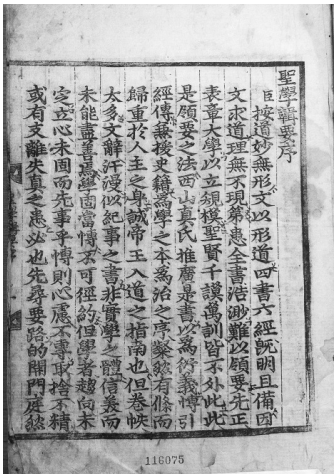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금속활자본과 울곡전서에 수록된 『성학집요』는 모두 현존하고 있고, 어제서문과 소지 등의 작성 시기를 통해 그 간행연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단행본으로 간행된 목판본만이 간행시기와 그 종류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존하는 21종의 목판본 『성학집요』를 畵數調查하여 각각의 판본의 특징을 밝혀 간행시기에 관련된 정보를 찾고 판본 간의 우열을 살피고자 한다.

21종의 목판본을 조사한 결과 두 가지의 판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판본 모두 간기가 없어 간행자와 간행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어 편의상 A본과 B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A본은 모두 14종<sup>10)</sup>으로 경북대학교를

10) 경북대학교(181.168 이69사) · 계명대학교(181.2212-이이사) · 고려대학교(C-1 A6A 1-4) · 국민대학교(151.5-이01ㄱ) · 단국대학교 울곡도서관 1(181.54 이817사) · 대구가톨릭대학교(동151.54 이69사-1-4) · 부산대학교(OMO 3-1 149 1-3) · 서울대학교 규장각 1-1 (奎2158-v.1-7) · 서울대학교 규장각 1-2(고181.1181-Y57s)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C02-0055a) · 전남대학교(계당OC3A1이69사 v.3-4) · 조선대학교(O/G 181.112 o847사

비롯하여 13개 기관에 소장되어있다. 형태사항은 四周單邊으로 半郭의 크기는 22.5×17.2cm이고 계선이 있으며, 11행20字 註雙행에 어미는 黑混入花紋魚尾이다. 반면 B본은 모두 7종<sup>11)</sup>으로 4개의 기관에 소장되어있다. 형태사항 四周單邊으로 半郭의 크기는 23.0×17.2cm로 계선이 있고 11행20字 註雙행이며, 어미는 黑混入花紋魚尾이다. 두 종의 판본 모두 사주가 단변이고, 계선이 있으며, 흑어미를 포함한 화문어미로 되어있어 목록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보일 수 있다. 실제로 같은 판종 안에서도 목록 작성자에 따라서 광곽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 목판본의 서문과 권1의 면을 비교해 살펴보면, 자체와 글자의 위치 등 거의 모든 것이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어미의 모양이 다르고, 광곽의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다. 단행 목판본 A와 B의 서문과 권1의 첫 번째 면을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목판 A본 序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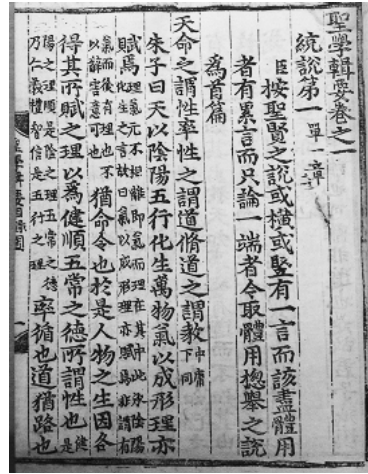


<그림 2> 목판 B본 序文

- v.3-4) · 충남대학교(子·儒家類 -348)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3-40).  
 11) 단국대학교 울곡도서관 2(181.54 이817入) · 단국대학교 퇴계도서관(고151.54-이817入) · 서울대학교 규장각 2-1(奎2339-v.1-4) · 서울대학교 규장각 2-2(奎2340-v.1-4) · 서울대학교 규장각 2-3(奎2342-v.1-2) · 연세대학교(181.15이이 성-판) · 한국국학진흥원(문중기탁자료).



<그림 3> 목판 A본 권1



<그림 4> 목판 B본 권1

A와 B판본의 형태와 자체를 정밀하게 대조한 결과 A의 판본이 B판본보다 광곽의 길이가 0.5cm가량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자체는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면에 동일한 위치의 글자 5가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고 있다.

<표 5> 목판본 A·B의 字樣 比較

	說	言	道	之	而
A본					
B본					

글자의 모양의 모양에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으나, 글자가 기울어진 각도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면을 교감한 결과, 상당히 많은 면에서 글자체는 다르지만 글자의 위치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두 판본 사이에 복각본의 관계

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목판본의 복각본의 경우에는 저본의 크기가 복각본의 크기보다 큰 점으로 미루어보면, B본이 A본의 저본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 특히 A본이 B본 보다 현재 두 배 가량 많은 판본이 남아 있는 것 또한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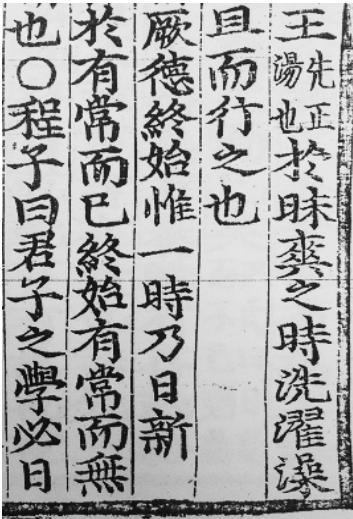
두 판본 간에 글자가 다르거나 내용상 다른 것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 6> 같이 나타났다. 앞서 B본이 A본의 저본일 가능성을 두고 B본을 앞에 세우고 A본을 비교하였다.

<표 6> 목판본 『성학집요』 校勘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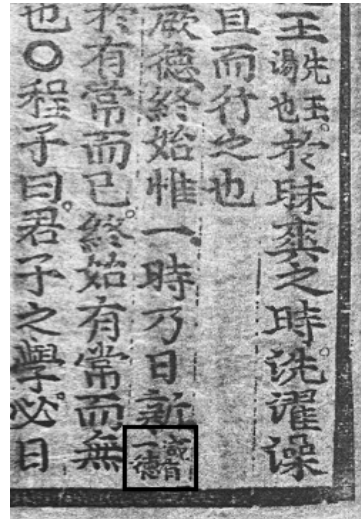
번호	章	내용	목판본	
			목판본 B	목판본 A
1	修己 收斂章	弗○禮記	弗○禮記(○)	弗也禮記(X)
2	修己 收斂章	글자위치 이상	정상(○)	한 행 뒤로 밀림(X)
3	修己 窮理章	一息之頃	一息之頃(○)	一息之傾(X)
4	修己 窮理章	因而導之	因而道之(X)	因而導之(○)
5	修己 窮理章	商書湯誥	商書陽誥(X)	商書湯誥(○)
6	修己 誠實章	收斂篤實	才+攸斂篤實(X)	收斂篤實(○)
7	修己 養氣章	而以爲未嘗有才焉者	而以爲未嘗有才焉者	而以爲未嘗有才焉者
8	修己 養氣章	生生不窮	生生不窮(○)	生生無窮(X)
9	修己 正心章	涵養積久	涵養積又(X)	涵養積久(○)
10	修己 輔德章	然後法家拂士日遠	然後法家拂士日遠(○)	然後法家拂士已遠(X)
11	修己 敦篤章	咸有一德(출진)	있음(X)	있음(○)
12	修己 功效章	其在事也則德盛仁熟	其在事也則德盛仁熟(○)	其在事也則德盛自熟(X)
13	修己 功效章	必其德之盛者日益盛。仁之熟者日益熟。	必其德之盛者日益盛。仁之熟者日益熟。(○)	必其德之盛者月益盛。仁之熟者月益熟。(X)
14	修己 功效章	上念皇天祖宗付畀之責。	上念皇天祖宗付畀之責。(X)	上念皇天祖宗付畀之責。(○)
15	正家 孝敬章	惟人爲大	無人爲大(X)	惟人爲大(○)
16	正家 刑內章	而惟責后妃之正	而惟責后妃之正(○)	而惟責后妃之下(X)
17	爲政 識時務章	法久弊生。玃安因陋。	法久弊生。玃安因陋。(○)	法久弊生。班安因陋。(X)
18	爲政 立紀綱章	中外聞之腹非。	中外腹非。(X)	中外聞之腹非。(○)
19	爲政 安民章	一取之民。	取之民。(X)	一取之民。(○)
20	爲政 明教章	在於取舍	在其取舍(X)	在於取舍(○)
21	爲政 功效章	一則牽於多慾。	一則牽於太慾。(X)	一則牽於多慾。(○)
22	聖賢道統	曾子以此三者。日省其身	曾子以此三者。日省其身(X)	曾子以此三者。日省其身(○)
23	聖賢道統	如羣飲於河	如群飲於河	如羣飲於河
24	聖賢道統	則修其辭。命辭無差。	則修其辭。命辭無差。(○)	則修其命。命辭無差。(X)

위의 표를 보면 다르게 기록된 24개의 내용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각수의 착오로 인해 잘 못 판각된 글자로 추정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8개 정도가 남는다.<sup>12)</sup>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B본이 A판에 비해 오류가 많고, 이 오류들이 A본에는 옳은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본다면, 먼저 <표 6>의 11번 항목을 보면, 『書經』 咸有一德편의 경우 B판본에서 해당 구절을 인용한 뒤 출처인 ‘咸有一德’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구절의 앞 구절의 인용절이 『書經』 太甲편을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힌 후 ‘다음 구절도 이와 같다(相書太甲. 下同)’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구절은 太甲편이 아니라 咸有一德편이므로, 단행 목판본 A에서는 해당 구절 아래 ‘咸有一德’이라고 출처를 밝혀 주었다. 또한 율곡전서본 복각본에서는 본문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 구절의 書眉에는 頭註를 이용해 ‘下同二字恐誤’로, 다음 구절에는 ‘恐當註尙書咸有一德’로 오류를 바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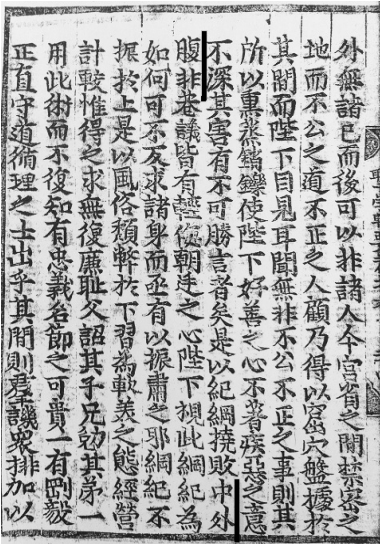
<그림 5> 목판 단행본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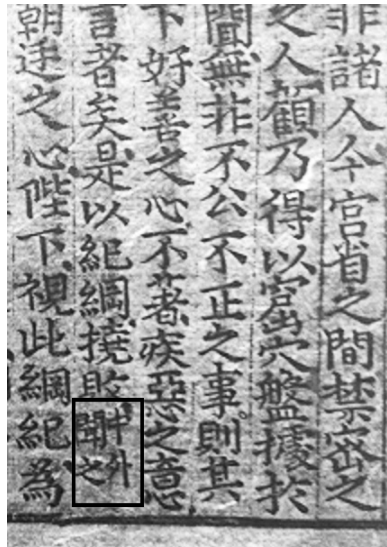
<그림 6> 목판 단행본 A

12) 편의상 제외되지 않은 것을 어둡게 표시하였음.

또한 18번의 立紀綱章의 ‘是以。紀綱撓敗。中外聞之腹非。…’라는 구절에서 ‘中外聞之腹非’의 ‘聞之’가 목판 단행본 B에서는 누락되어 ‘中外腹非’로 되어있다. 이것을 단행 목판본 A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그림 7> 목판 단행본 B



<그림 8> 목판 단행본 A

해당 면은 B판본과 어미의 모양과 자체는 조금 다르나 OHP필름으로 복사하여 대조한 결과 글자의 위치, 앞뒤 글자와 맞물린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번각본의 관계가 형성된다. 번각본의 경우 한 행에 두 글자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 같은 크기로 글자를 새기면 다음 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면을 번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므로 추가해야 하는 글자를 小字로 하여 위의 그림과 같이 한 항에 함께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B본에서는 “一取之民” 중에 “一”자가 빠진 채 간행되었으나, A본에서는 정확히 간행되었고, B본의 “在其取舍”도 A본에는 “在於取舍”로 맞게 간행되었다.

이러한 정황만을 가지고, 현존하는 단행 목판본의 간행연대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단행 목판본에 두 가지의 판본이 현존하며 A본은 B본보다 뒤에 간행되었을 뿐 아니라 B본이 A본의 저본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5. 結 論

『성학집요』는 율곡 이이가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던 1575년에 선조에게 올린 것으로, 조선인에 의해 편찬된 조선 最高의 제왕학 서적이었다. 현재 『성학집요』의 많은 판본이 전래되고 있으나, 정확히 언제 간행되었는지 현존본의 수와 종류는 어느 정도 인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간기가 없는 목판본의 경우 한 종으로 취급되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조선시대부터 일본강점기까지의 목록에 기록된 『성학집요』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고사촬요』와 『누판고』·『각도책판목록』 등의 책판목록을 통해 목판본의 간행이 황해도 해주와 전라도 전주 두 곳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간행된 목판본은 모두 4책으로 제작되었고 목판본의 책판은 지역의 서원에서 관리·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에 7책의 주자본과 4책의 목판본이 유통되었으며, 西庫에 소장된 주자본에는 현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학집요』는 宣祖朝에 해주에서 처음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후에 이귀의 건의에 따라 다시 한 번 간행이 이루어졌다. 또 肅宗朝에 전라도 전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이후 금속활자 중 무신자로 肅宗朝, 英宗朝에 모두 세 차례 간행되었으며, 율곡전서자로 영조 25년에 『율곡전서』에 수록되어 간행되었다. 율곡전서자본은 순조 14년에 다시 목판본으로 번각되었으며, 광무년간에 학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신연활자본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 소장의 단행본은 모두 64종으로 목판본 21종, 금속활자본 18종, 필사본 16종, 신연활자본 9종으로 나타났으며, 율곡전서에 수록된 것은 모두 21종

으로 율곡전서자본(홍계희활자), 목판본, 필사본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에는 모두 85종의 판본이 현존하고 있다.

넷째, 목판 단행본의 형태사항만을 보면 광곽의 형태와 크기, 항자수가 모두 비슷하여 1종의 판본으로 보기 쉬우나, 21종의 목판본을 모두 實査한 결과 실제로 두 가지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판종을 교감한 결과 내용상의 차이 24가지를 발견하였고, 두 판본이 번각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록 단행 목판본의 간행시기를 추정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목판본에 이관 존재하고 그 사이에 우열이 있음을 확인한 작은 성과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다른 판본과의 교감을 실시하여 『성학집요』의 전체 판본에 대한 간행계통을 추정하는데 이르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國朝寶鑑』.

『承政院日記』.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鄭亨愚, 尹炳泰 共編. 『韓國冊板目錄總覽』. 韓國情神文化研究院 古典資料編纂室, 1979.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청주고인쇄박물관.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학술대회논문집, 2009.

韓國古典籍綜合目錄. <<http://www.nl.go.kr/korcis/>>.

『聖學輯要』 諸板本.

경북대학교(181.168 이69ㅅ)

계명대학교(181.2212-이이ㅅ)

- 고려대학교(C-1 A6A 1-4)  
국민대학교(151.5-이01 ㄱ)  
단국대학교 울곡도서관 1(181.54 이817사)  
단국대학교 울곡도서관 2(181.54 이817ㅅ)  
단국대학교 퇴계도서관(고151.54-이817ㅅ)  
대구가톨릭대학교(동151.54 이69ㅅ-1-4)  
부산대학교(OMO 3-1 149 1-3)  
서울대학교 규장각 1-1(奎2158-v.1-7)  
서울대학교 규장각 1-2(고181.1181-Y57s)  
서울대학교 규장각 2-1(奎2339-v.1-4)  
서울대학교 규장각 2-2(奎2340-v.1-4)  
서울대학교 규장각 2-3(奎2342-v.1-2)  
성균관대학교 존경각(C02-0055a)  
연세대학교(181.15이이 성-판)  
전남대학교(계당OC3A1이69ㅅ v.3-4)  
조선대학교(O/G 181.112 o847ㅅ v.3-4)  
충남대학교(子.儒家類 -348)  
한국국학진흥원(문중기탁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3-40)